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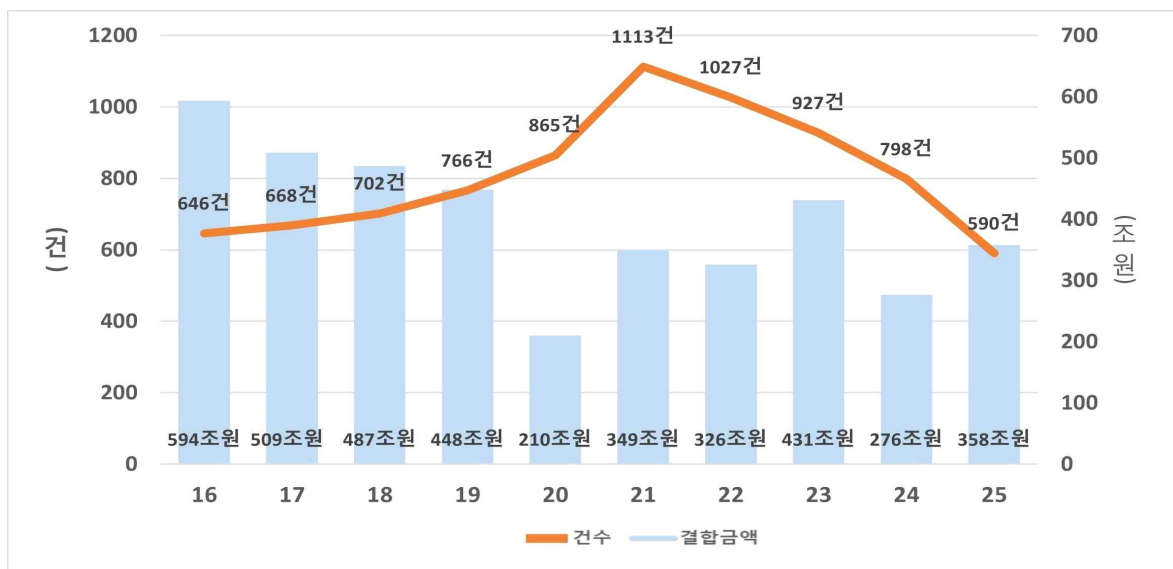
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: 신고건수 감소 속 대형 기업결합 심사 늘어

-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밀도 있는 심사 실시-
- AI, K-컬처 등 첨단전략·한류 관련 산업 분야 M&A 활발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‘공정위’)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였다. 이는 결합금액*으로는 358.3조 원에 해당한다.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(798건) 대비 26%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(276.3조 원) 대비 30% 증가한 것으로,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.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. 특히, 업종별로는 인공지능(AI) 가치사슬 분야(반도체·데이터센터·로봇 등), K-컬처 관련 산업 분야(게임·화장품·미용서비스 등)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진 특징을 보인다.

* 주식취득금액, 영업양수금액, 합병금액 등을 의미(「기업결합의 신고요령」)

【 연도별 기업결합 심사 건수* 및 결합금액 (2016~2025년) 】



*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신고받아 해당 연도에 심사를 완료한 건수를 의미
(단, 非신고대상 M&A도 존재하므로 그 해에 이루어진 모든 M&A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)

기업결합 주체별(취득회사 기준)로 보면,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416건으로 전체의 70.5%를 차지하였고, 기업결합 금액은 52.4조 원으로 전체의 14.6%에 해당한다.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(Outbound M&A)은 전년대비 건수(13→20건) 및 금액(0.9→2.6조 원)이 모두 상당히 늘었다.

대기업집단(공시대상기업집단)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37건으로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2.9%를 차지하였고, 기업결합 금액은 21.5조 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41.0%에 해당한다. 기업집단별로는 「에스케이」(12건), 「태광」(8건), 「한화」(7건)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았다.

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4건으로 전체의 29.5%를 차지하였고, 기업결합 금액은 305.9조 원으로 전체의 85.4%에 해당한다. 이 중 외국기업 간 결합 건수는 131건, 금액은 295조 원('24년 211조 원 대비 84조 원 증가)으로 2025년 기업결합 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*

* 전세계적으로도 M&A 규모가 '24년 대비 50% 증가(건수는 3% 감소)한 것으로 나타남
[런던증권거래소그룹(LSEG) - "Global Mergers & Acquisition Review - Full year 2025"]

업종별(피취득회사 기준)로 보면, 제조업이 223건으로 전체의 37.8%를 차지하고, 서비스업이 367건으로 전체의 62.2%를 차지하였다. 제조업은 전기전자(64건), 기계금속(60건), 석유화학의약(55건) 순으로, 서비스업은 금융(113건), 도·소매유통(56건), 정보통신방송(49건)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았다.

세부적으로 보면, 반도체 설계 및 소재·부품·장비, 데이터센터, 기업용 AI 솔루션, 클라우드, 로봇 등 AI 가치사슬과 연관된 기업결합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. 또한, 최근 한류 확산을 배경으로 엔터테인먼트(K-pop·게임), 뷰티(화장품·미용서비스) 등 이른바 'K-컬처' 관련 시장에서 국내·외 기업 간 기업결합이 다수 이루어진 점도 특징적이었다. 이커머스, OTT 등 그 밖의 주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경쟁력 확보 차원의 기업결합 움직임도 있었다.

【 주요 업종별 기업결합 사례 】

업종	기업결합 건	업종	기업결합 건
반도체 설계	Synopsys(미국)-Ansys(미국)	K-POP	하이프-한국야쿠르트
반도체 소부장	AMD(미국)-ZT(미국)	게임	111퍼센트-Habby(싱가포르)
데이터센터	Qualcomm(미국)-Alphawave(미국)	화장품	L'ORÉAL(프랑스)-고운세상코스메틱
기업용 AI 솔루션	Reliance(인도)-Meta(미국)	미용서비스	Blackstone(미국)-준오·준오뷰티
클라우드	엘엑스인터내셔널-비에스지파트너스	이커머스	지마켓-AliExpress(중국)
로봇	삼성전자-레인보우로보틱스	OTT	티빙-웨이브

기업결합 수단별로 보면, 주식취득(321건, 54.4%)이 가장 많았고, 영업양수(98건, 16.6%), 합작회사 설립(96건, 16.3%), 임원겸임(38건, 6.4%), 합병(37건, 6.3%) 순이었다.

* 합작회사 설립, 임원겸임, 합병의 전년대비 감소는 '24.8월 신고면제 대상 확대(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, PEF 설립, 1/3 미만 임원겸임 등)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

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층 심사를 진행한 건은 전년대보다 많이 늘었다.* 특히,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큰 'Synopsys-Ansys 주식취득', '티빙-웨이브 임원겸임', '지마켓-AliExpress 합작회사 설립' 등 3건*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.

* 심층심사 건수(금액) : ⁽²⁴⁾36건(31조 원) → ⁽²⁵⁾50건(97조 원)

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건의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힘썼다. 필요시 전문성·중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,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*하는 등 엄정 대응하였다. 나아가, 시정조치 이행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에 있다.

* 대한항공·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(이행강제금 부과 - 대한항공 58.8억 원, 아시아나항공 121억 원, 5.8억 원) (공정위 보도자료, '25.8.2.', '25.12.22.')

2026년 공정위는 시장의 혁신·경쟁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. 아울러,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(예 : 핵심 인력 흡수)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.

※ [별첨]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

담당 부서	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	책임자	과 장	신용호	(044-200-4633)
		담당자	사무관	박용택	(044-200-4634)
			조사관	이승희	(044-200-4638)
담당 부서	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동욱	(044-200-4932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아	(044-200-4937)